

(Robert Vannoy) , 주요 선지자, 8강

이사야 11:1-9, 이사야서에 대한 차이점 접근 11:6-9

이사야서 10장 검토

우리는 여전히 임마누엘서, 즉 이사야 7-12장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을 마쳤으므로 오늘 아침에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이 앗수르 숲이 베어지는 것으로 끝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28절에서 앗수르인들이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진격하여 32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는 철로 숲의 수풀을 베실 것이며 레바논은 강한 자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10년 말에는 앗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 그루터기의 새 싹 11장의 시작 부분에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과 대조가 있습니다: 앗수르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함 -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함 앗수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역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다윗의 왕국은 멸망되지 않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싹을 내보냅니다.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고, 11장 1절을 읽으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리라.” 비록 심판이

유다에게도 임하고 다시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가 베임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여호와께서 이 가지, 이 가지를 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형벌을 받았지만 앗수르의 경우처럼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11:2 가지는 성령을 부여받은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 이제 11장 1절은 구약에서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분명합니다. 2절에 들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2절이 마치 이 지팡이와 이 가지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리고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2-10절은 이 가지가 나온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두 부분으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6-10절은 그의 왕국의 특징을 묘사한다. 그러면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과 메시아적 인격의 결합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2절은 영에 의한 가지의 부여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제시한 이사야서 4장 2절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4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 그리고

땅의 소산은 훌륭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4:2에는 신에 대한 힌트가 최소한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신인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것은 7장 14절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라” . 이사야 7장 14절에는 신성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을 것이요” , 확실히 거기에서는 신이라 불릴 것입니다. 따라서 4:2, 7:14, 9:6 - 모두 메시아에 관한 내용 - 당신은 신성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11:2-3 6 성령의 능력과 의로운 심판의 측면 여기 11:1에서 신격은 그다지 많이 고려되거나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과 그의 행동의 정의. 그래서 그림은 다가오는 메시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성령의 능력에는 여섯 가지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 즉 둘, 둘, 둘, 여섯 가지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3절에 “성령이 그로 하여금 주를 경외함으로 총명 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게 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공의로 책망하시며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3절은 그의 심판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고 여기서 보이는 그의 능력의 동일한 면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1:4 의로운 통치자 4절은 그의 활동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4절을 읽을 때 언급된 내용은 교사보다는 강력한 통치자의 특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은 실제로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않은 일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초림 때 고난 받는 종으로, 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는 재림 때에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4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공평으로 책망하며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내 생각에는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의해 확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구절을 암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 입의 영을 소멸하시고 그가 오실 때의 광채로

멸망시키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넘어서는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영(즉 호흡)으로 소멸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입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일이 그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임을 봅니다.

이사야 11:4 - 악한 자가 멸망당함 [살후. 2:8; 요한계시록 19:11-21] 나는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이 다른 면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1:4의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 “그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그는 의인을 죽일 것이요. 사악한” 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가 사악한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악인을 죽이리라” 이 문구는 집합체처럼 들리지만, 영어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집합체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되면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악인을 죽이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구절을 언급할 때 그는 단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시대, 곧 바울의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 입의 영으로 멸망시키실 악한 자가 나타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든 복수든 어느 방향으로든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단수로 만들고, “

악한 자”를 헬라어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바울의 암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단어 *아노모스* (*anomos*)는 개인, 즉 불법자,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제임스 왕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주께서 그 입의 신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악한 자가 나타나리라.” “그 입의 영”은 헬라어로 프뉴 *마티* (*pneumati*) 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 (*ruah*) 이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입술의 기운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pneumati*를 “*breath*”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치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pneumatic*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호흡, 정신, 바람”으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11장 4절에 대한 신약성경 암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4절이 아직 미래, 바울 시대의 미래, 그리고 아마도 아직 미래의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미래 - 적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시적인 것까지 가능합니다. 덜 명확하고 표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11절에서 시작하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과 의로움이라. 그분은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15절에서 요한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

대한 이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수형으로, 그것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사야 구절은 - 여기서 직접적인 인용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사야 구절은 요한계시록 19:15에서 말한 것의 배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네 그것은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복수형입니다. 21절은 “말 타신 이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남은 자들이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채우더라” 고 말합니다. 확실히 요한계시록 19장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사야 11:6-9 그분의 왕국의 성격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2-5절에서는 성령에 의한 그의 은사와 그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6-9절은 그의 왕국의 성격을 묘사한다. 이사야 11장 6~9절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들을 물고 가느니라” 고 했습니다. ; 암소와 곰이 먹이를 먹고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 굴에서 장난하며 젖뎌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의 왕국의 성격 6-9: 9는 당신이 말할 수

있듯이 사실을 요약합니다. 아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나에게는 9번이 여기서 그림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가져온 외부 위험의 제거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가져온 외부 위험의 제거입니다. “해롭게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언급된 기간은 이사야 2장 2-4절에 언급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과 평행한 미가 구절에서 “각 사람이 쟁기를 삼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라 .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 외부 위험 제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도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이며 , 그 때는 장차 올 통치자, 이 신성한 통치자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6-9과 천년왕국 이제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6-9절의 세부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유적인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늑대, 새끼 염소와 함께 사는 표범, 소와 곰이 먹이를 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이 제거되고

외적인 평화와 안전의 조건이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위험이 제거되고 평화와 안전이 있는 시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천년을 앞당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종류의 문학, 묵시문학에서는 정확히 천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평화와 안전의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천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 이사야는 이 기간의 길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지팡이가 통치할 때가 올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를 해석하는 3가지 방법 11:6-9 이제 문자적 또는 비유적 질문으로 돌아가려면 인용 선택 페이지 14를 보십시오. 여기에 John Oswald의 문단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도 Oswald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새로운 국제 주석서입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진술을 해석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9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입니다. 즉, 말씀의 문자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자의 육식성이 사자의 본질이라는 사실과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려면 사자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른 해석이 의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가 재해석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진술을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 첫 번째 방법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동물은 인간 내부의 다양한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이행 문제를 방지하지만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가 텍스트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치점을 찾는 것은 오로지 주석가의 독창성에 달려 있습니다. 5:1-7과 대조적으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도원과 같아서 일치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다른 유사한 구절을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확장된 표현이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메시아의 통치에서는 불안, 위험, 악과 관련된 두려움이 제거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피조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로마서 8:19-21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창조성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지는 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스왈트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 그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영적” 접근 방식과 그가 명명한 “비유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면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에는 없는 개념이 소개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동물 창조물이 이러한 평화의 조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물론 심지어 생리학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죄에 빠지기 전의 에덴동산 상태로의 회귀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는 그 모든 동물이 아담에게로 끌려왔고 그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아담과 동물 사이 또는 동물과 동물 사이에 적대감이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데려오셨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자기와 같은 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동물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동물의 왕국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죄로 타락하기 전에 동물의 왕국에 죽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의 참고문헌 중 2페이지 하단에 Daniel Wonderly의 책 *고대 퇴적물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는 그것이 도서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마도 서점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의 236-240쪽에는 “타락 전 죽음의 문제” 라는 제목의 부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타락 이전에 동물계에 죽음이 있었다고 결론짓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계의 죽음 자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곧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동물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죽음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이것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개울이나 웅덩이로 걸어가다가 풀밭에 있는 곤충 몇 마리를 밟았습니다. 으스러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 모든 플랑크톤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유지하는 고래에 대해 어떻게 말하시나요? 알다시피, 체 같은 장치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통과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전체 먹이 사슬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를 먹이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타락의 일부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 잔뜩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누르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부 위험 제거 조건에 대해 말하는 비유적인 해석이 고려되고 있다는 오스왈트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 단일 요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점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삭제됩니다.

이사야 11:6-9 Post-Mil의 관점에서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Post-mil 및 a-mil 해석가는 6-9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밀리터리 이후의 관점을 보려면 11페이지로 가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조셉 애디슨 알렉산더의 주석에서 일부 단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밀리터리 이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유대인 중 아벤 에즈라와 마이모니데스를 포함하여 고대와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 작가들은 이 예언을 전적으로 은유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평화를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현 시대에 말입니다. 이는 새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평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 코에세이우스 와 클레리쿠스는 이 구절을 교회와 세상 사이의 외적 평화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독교가 사악한 사람들 자신에게 가져온 변화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트링가(Vitringa)는 양, 송아지, 살진 짐승이 기독교인의 진보의 연속적인 단계를 나타내도록 풍경 속의 각 인물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자는 공개적인 적을 [상징]하고, 표범은 더 위장한 자들을, 늑대는 배신하고 사악한 자들을, 어린 아이는 목사를 대표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장관 사진이군요.

이런 종류의 설명은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칼빈과 헨스텐버그는 이 구절이 물질적 창조, 즉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질적 창조에도 미래 변화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물질적 창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19-22), 그들은 참 종교의 구체적인 효과에 관해 다른 저자들과 동의하는 반면, 7절의 주요 주제는 '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이리하여' 사자와 소가 짚을 먹으리라... '." Alexand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비트링가는 젖소를 주고 받는 지점, 우유를 생산하고 마시는 지점에 도달한 기독교인의 대표자로 만들어 자신의 우화적 가설을 실행합니다. 그는 그 교리가 너무 단순하고 까다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짚을 신성한 진리, 즉 복음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

그러한 해석의 자의적 성격은 여기서 짚은 참된 교리를 의미하고 다른 곳에서는 거짓을 의미한다는 Gill의 논평에 의해 드러납니다. 보세요, 당신은 그 길을 가기 시작하고 다양한 문구에 당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장 11절을 인용하여, “지푸라기나 사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으나 사자가 빨대를 먹는 것은 습관과 참으로 본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에 적합한 상징이니라.” 그가 이해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음이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사회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암시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암시하는 혁명” 이라고 그는 거기에 그리스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κτῆσις* (*ktisis*) 또는 비합리적인 창조, “현재 인간을 위해 굴복하고 있는 부패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젖먹는 아이는 독사의 구멍 위에서, 또는 그 위에서 놀 것이다. 바실리스크의 굴 위에 젖은 아이가 손을 뻗거나 었을 것이다.”

루터와 칼빈, 후스에 따르면, 12페이지 상단에, 반기독교 뱀의 굴에 손을 밀어넣어야 했던 아이들처럼 - 이것은 실제로 비유의 단순한 연속일 뿐입니다. 그것은 7절에서 시작되며, 참 종교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변화, 즉 영향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변화를 추가 비유로 표현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지막 진술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등이 그가 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절은 앞의 설명이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늙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구도 해를 끼치거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른 포스트 밀러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확산을 통해 사회에 평화의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마도 부패의 속박에서 피조물을 구출한다는 암시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창조 자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Post-Mil과 Pre-Mil의 이해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인데, 현시대 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질 것인가 ?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 그분은 재림

후에 그것을 확립하실 것입니까 ? A-Mil의 관점에서 본 이사야 11:6-9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이후입니다. a-mil 해석을 보려면 인용문의 18 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것은 EJ Young, 1권, 390페이지, 두 번째 문단, 18페이지 상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Young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낙원으로의 복귀를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는 각주 13을 참조하십시오.) “오래된 주석가들에 따르면, 동물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인간 자신의 변화를 표현하는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는 서로 해치려는 성향이나

잔인함이나 비인도적인 성향이 전혀 없을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선지자는 인간 본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축복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사야가 동물 자체를 크게 강조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바로 이 사실은 비유적인 해석으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면, 동물의 변화에 관해 것처럼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여기서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병행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동물은 사람의 조력자였으며 사람에게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적대감은 적어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Hengstenberg는 성경에 따르면 '지팡이도 없고 사자도 없었다'고 말한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에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삼아야 한다는 동물에게 주어진 명령과 허락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단락은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합리적인 창조에서 악이 그칠 때, 비합리적인 창조에서 악의 반영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사야 65:25, 66:22). 비합리적인 창조의 이러한 변화는 물론 인간들 사이의 더욱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악이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동물들은 더 이상 서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을 반영하면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서도 적개심이 완전하고 완전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소 문자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압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의 구조에 생리학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진 것은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다. 이것이 Hengstenberg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로 인해 일어날 변화의 극한 한계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19페이지 상단)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언제 나타나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영이 이사야 2장과 관련하여 취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입장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메시아로부터 받은 평화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여기에 묘사된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메시아로부터 받은 원칙에 충실한 만큼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온 땅이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덮일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그 상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실한 만큼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실현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모든 동물을 비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죄가 있는 한 동물은 여전히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동물이 이런 상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평화의 원리에 충실한 한 여기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격을 갖춘 학위 종류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쎄, 남자들은 우리가 그런 결과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고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평화로운 시간을 영원한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내 유인물 18페이지 하단 에 “우리는 세부 사항을 누르도록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391에 있습니다. 음, 아니,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은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유적인 해석이다.” 그게 요점인가요? 아뇨

, 다음 말은 “만약 모든 것이 비유에 불과하다면 그런 세부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전 페이지 390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는 예언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완전성은 영원한 상태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Bracker 가 말합니다. 평화의 부족; 정의가 다스리는 곳에만 평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설명된 조건은 “가정의 천년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밀레니엄 해석을 배제합니다. “천년왕국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중에도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후에는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죄가 없고 가장 충만한 평화의 표현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이 축복을 온전한 의미로 누리게 될 것이며 오직 임마누엘, 즉 이새의 갈대에서 나시고, 갈보리의 큰 전투는 악인들을 죽여 죄에 대한 대속물을 주셨으니, 모든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그 이름에 돌릴지어다.” 391편에 있습니다.

이사야 11:6-9 이 예언은 언제 실현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포스트 밀은 참 종교의 효과가 사회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며, 창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확산을 통해 현 시대에 살고 있다. Alexander는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가 인용한 12페이지의 Post-mil이기도 한 Delitzsch가 Delitzsch 를 제안합니다. 페이지 중앙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부들과 루터, 칼빈, 비트링과 **와 같은 주석가들은** 동물계의 이 모든 인물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현대 합리주의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전체를 아름다운 꿈이자 소망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입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의 경계 너머에서 그 실현이 기대될 것이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재 예정된 과정의 필수적인 연결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심지어 가장 야만적인 종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갈등과 피에 굶주린 것들 사이에서도 비합리적인 생물들 사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그의 왕족의 유산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낙원의 평화가 새로워질 것이며 황금시대에 대한 대중적인 전설의 모든 진실이 실현되고 입증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깔로.”

그래서 포스트밀은 복음 전파를 통해 현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a-mil은 부분적으로 현 시대에 있지만 완전히 영원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비 밀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이 땅에 이러한 조건을 세우실 때까지

이러한 조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일반적으로 pre-mils에 대해 말합니다. J. Barton Payne은 자신만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의 1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는 이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취 기간 15”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서 예언 백과사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그가 구속 역사를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에 숫자를 부여하여 특정 기간에 도달할 때마다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숫자만 언급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서 15번째 기간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취 기간 15”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편 96:12,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연의 기쁨, 로마서 8:21에서와 같이” 천년왕국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가축과의 관계에 대한 야수의 현재 행동.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는 그들이 멸절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자와 늑대가 에덴 이전이나 에덴 밖에서 그랬던 것처럼 육식성도 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조건은 단지 시온 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동물들이 아마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비유를 다시 창세기로 끌어와서 동물들 사이의 수동적 조건이 에덴동산에만 국한되었다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 밖의 상황은 아마도 현재와 일반적으로 같았을 것입니다 .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이사야 11:10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안식 좋아요,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1절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만국이 그를 찾겠고 그의 안식은 영화로울 것이로다.” 10절은 이사야 2장 3절과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2장 3절은 열방 이 시온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리로다. 그리하면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는 만민의 기가 되리니 만민이 그를 찾으리라” 그리고 그 구절은 “그의 안식은 영화로울 것이요” 라는 문구로 끝납니다.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이를 *무덤* 으로 번역했는데, “그의 무덤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의 안식 - 무덤” 은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해석인 예루살렘의 성묘의 영광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안식” 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살펴보면 결코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있는 장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11)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하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28).” 그러므로 민족들은 오실 이 분을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으리라.

좋아요,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11:1-10은 잘 알려진 구절이며 확실히 큰 관심을 끄는 구절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답: 무덤.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는 예수께서 장사지낸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로 생각하는 도시 외곽의 정원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쉴 곳이다. [뭔가 끼어드는 학생] 무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놀라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의 어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틴 별게이트에서는 이것을 단지 “안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무덤”이라는 매장지로 번역했습니다.

좋아요?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해당 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Naomi Toavs 작성, 2009년, Gordon College

편집자: 칼리 가이먼 (Carly Geiman)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